



영화 파묘의 한 장면.

곳곳 아픈 역사의 흔적... 일제 잔재 청산은 아직

영화 파묘 인기몰리로 본 광주·전남 친일 잔재는

민족정기를 말살했던 일제의 만행을 다룬 영화 '파묘'가 관객 750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식민잔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식민잔재를 둘러싸고 청산론과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식민잔재는 총 201개(광주 65개, 전남 136개)에 달했다. 광주에 있는 식민 잔재물은 현판 6개, 비석 7개, 군사시설 15개, 통치시설 14개, 산업시설 2개, 교가 18개, 기타 3개 등이다. 대부분 친일잔재에는 단죄비 등이 세워지는 조치가 있었지만 청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지역 잔재물을 살펴본 결과 이상 곳곳에서 식민통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계단에는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광주신사 계단입니다'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 또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방공호 앞에는 '광주 도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해 1940년대 설치된 방공호'라는 글과 함께 일제 식민지 잔재물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직공원 내 양파경에도 일제 식민통치

신사계단·교가·비석·군사시설에 친일 인사가 쓴 현판도 남아 광주 65개·전남 136개 잔재 "철거해야" vs "교육자료 활용" 청산 놓고 지자체들 의견 엇갈려

협력자인 정봉현, 여규형, 남기운, 정운수 4명의 친일 인사가 쓴 현판이 새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광주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잔재에 친일행적을 알리는 단죄문을 설치했다. 다만 이 같은 유형문화재를 제외하고 교가(18개 학교)와 친일군인 김백일의 이름을 딴 '백일' 관련 명칭 등 무형문화재와 사적 재산에는 친일 행적을 알릴 수 없다. 전남지역 식민잔재는 총 136개(목포6, 여수10, 순천11, 나주3, 광양7, 담양3, 곡성5, 구례3, 고흥6, 보성1, 화순13, 장흥6, 강진1, 해남6, 영암5, 무안15, 함평2, 영광3, 장성24, 완도1, 진도3, 신안2)로 광주지역 잔재물의 2배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신사 5개와 석물 80개, 군사시설 18개, 건축물 1개, 기타 7개, 친일인사 관련 잔재물 25개 등이다. 신사는 일본의 신토신앙에 근거해 만들어진 종교 시설로 전남에는 고흥 소록도 등지에 남아있다. 석



10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내 친일인물 윤운렬, 이근호, 홍난유의 선정비가 늘어져 있다. (왼쪽) 남구 사직공원 내 양파경에 일제 식민통치 협력자 정봉현, 여규형, 남기운, 정운수의 현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물은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시설로, 일본의 총흔비 양식을 계승해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 해남에 있는 기마독립선언기념비의 경우 기단과 비석 모두 일제강점기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로는 나주 구진포 터널이 있다. 1914년 일제가 조선 수탈을 위해 호남선철도를 개통하면서 만든 터널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가족을 배웅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식민잔재 청산여부를 두고 지자체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남 식민잔재 청산 추진 용역결과

설명회에서 목표와 순천, 담양의 경우 조사된 식민잔재물을 최대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흥군의 경우 '소록도 신사참배 건물은 도 지정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식민잔재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는 관계자들도 있었다. 곡성군 문화원장은 "일본잔재와 일본식은 구별이 필요하다"면서 "에시로 곡성 중앙마을은 일본 물건을 납품한 일산방직 이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히 역사 깊은 마을의 이름을 일산방직 이름을 따랐다고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무안군 문화원 관계자 역시 "교육이 곧 식민정산이라고 생각한다. 잔존 가치로서 가능성을 갖고 활용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사 관련 시민단체는 유·무형을 나눈 교육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문화상 등 친일의 흔적이 남은 무형문화재는 없애는 게 마땅하지만 흑역사도 역사이니만큼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울들어 현직 경찰 음주운전 잇단 적발에 광주경찰청직장협 "술 마시지 말자" 호소

광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자 경찰 내부에서 '술을 마시지 말자'는 호소까지 나왔다. 광주경찰청 소속 6개(광주경찰청, 5개 일선서)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8일 경찰 동료 직원들에게 음주 금지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냈다.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서다. 대표단은 "최근 광주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과 동료 보호차원에서 음주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표단은 "음주운전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경찰청에서 발령한 특별경보 1호에 맞춰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주 금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러 "특히 교대근무 현장 근무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만큼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청 관내에서는 올해 들어 직원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1월 2일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됐다. 또 지난 1일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위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어받고 도주했다. 지난달에는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붙잡힌 경찰도 있었다. 한편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7일 윤희곤 경찰청장은 오는 4월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병원 하루 적자 수억여원

환자 고통 가중·병원 적자 눈덩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20일째인 10일 광주·전남 상급병원에서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환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병상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원의 경영상 피해도 커지고 있다. 10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조치를 시작했음에도

대다수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상급병원들은 응급 진료·수술위주 축소 운영에 돌입해 경영 적자도 쌓여가고 있다. 광주지역 상급대학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가 줄고,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만 진행해 수술건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특히 병상가동률이 급감해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의 경우 하루 적자가 수억원에서 십억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료사태 20일 동안 광주지역 상급병원의 총 적자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더 장기화되면 남아있는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처음으로 강원도 일부 대형병원 4곳에 재난관리기금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 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한 보호자는 "어머니가 아픈데 3개월 후에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2차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처로 애꿎은 환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총선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 고소·고발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각당의 경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예비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선에서 밀린 경쟁자 또는 지지자들의 고소·고발이 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 모 예비후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경쟁 상대인 예비 후보가 당내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의혹으로 특정 후보를 고발했음에 따라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8일까지 이번 총선 관련 21건(2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해 4건은 불송치하고, 17건(2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은 모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을 지난 1

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해당 후보자가 광주지역 모 인터넷 언론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 직원으로 두고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도 경선 참여자의 '이중투표' 권유 의혹과 순천시 전·현직 공직자가 '관련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총선 관련 사건에 대해 내용은 물론 대상 인원 등 현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익이율 2020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금융 등 다양한 맞춤형 대출 상품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림지점 062)528-2640~2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